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b>① 김관용 도지사, 현장혁신 제1과제로 안전에 방점!</b> 도민안전정책 회의 주제, 실국별 안전정책 긴급 점검	안전정책과	 사진별첨
<b>② 경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 우수 부서 시상</b> 대상 : 안동시·성주군, 도 최우수 부서 : 문화유산과·산림자원과	예산담당관	 사진별첨
<b>③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大 바겐세일 실시</b> 23개 전 시군 숙박시설음식점 등 944개 업체 참여. 무료입장 및 최대 50% 까지 할인	관광진흥과	 사진별첨
<b>④ 일본의 전략적 독도 도발 좌시할 수 없다!</b> 경북도, 2017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언급 규탄	독도정책관	사진별첨
<b>⑤ 여성일자리..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에 '답' 있다</b> 2015년 전국 최초 출범한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매년 여성 취창업의 다름돌 역할	여성가족 정책관	 사진별첨
<b>⑥ 한-인니협회,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성과 거뒀다</b> 경북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로 수출거점 마련	글로벌통상 협력과	사진별첨
<b>⑦ 양식산 쥐노래미, 밥상위에 오를 날 머잖아!</b> 경북도, 양식 대체품종 개발위한 시험·양식 마무리 단계	수산자원 연구소	사진별첨
<b>⑧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워킹로 행정서비스 구현</b> 스마트워킹 환경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협업·소통·공유	정보통신과	사진별첨
<b>⑨ 4차 산업혁명 민실장(민생·실용·현장속으로) 기업 방문</b> 인쇄전자 및 파워반도체 대표기업 2곳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창조경제 과학과	사진별첨
<b>⑩ 방사능사고 빈틈없이 대응한다</b>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월성원자력발전소 합동소방훈련	소방본부	사진별첨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작성자	과장	김창우			
			사무관	김종현	주무관	김춘희	
		연락처	054-880-2312				

## 김관용 도지사, 현장혁신 제1과제로 안전에 방점!

- 도민안전정책 회의 주재, 실국별 안전정책 긴급 점검 -
- 경북이 주도하여 재난대응 모델 만들고 전국 확산해야 -
-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 -

경상북도는 25일 오전 8시 30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중심 안전정책 회의’ 가졌다.

이번 회의는 현장 혁신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먼저, 도민안전실에서 여름철 안전 특별대책 등 도민 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전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을 중점 점검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풍수해, 지진,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저수지 붕괴 등 42종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장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조직·기능 및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경북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진 동향분석 등을 36,500명의 도민안심 SNS단에게 통보하고, 재난방송 자동전파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발생시 TV자막을 통해 송출되도록 할 계획이며, 재난문자 발송 또한 기존 8~10분 걸리던 것을 4~5분으로 단축하고 조기경보 또한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로 당길 계획이다.

또한, 재해 위험도가 높은 안전 D·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2회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별 파일화 및 현장사진 보존, 전산화 관리 등으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적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로, 하천 등 SOC 시설에 대해 철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우려요인 제거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화학방재센터, 환경청,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ZERO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사용 밀집 및 기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만들기에 돌입하고 있다.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 되고 해안도로 침식, 주택침수 등 연안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 시설물 설치 시 침식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안전에는 만약이 없다. 다른 건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지만, 안전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고 강조하고,

“경북이 주도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모델’ 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도민이 안심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전 공무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담당관	김진현			
			담당	김일곤	주무관	김복순	
		연락처	054-880-2154				

## 경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 우수 부서 시상

- 대상 : 안동시·성주군, 도 최우수 부서 : 문화유산과·산림자원과 -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3월말 기준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8개 시·군과 6개 부서에 대해 시상했다.

경북도가 정부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3월말 기준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안동시, 성주군이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에는 영주시, 칠곡군, 우수상에는 구미시, 봉화군, 장려상에는 경산시와 의성군이 수상했다.

수상 시군에 대하여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대상 500만원,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경북도 본청 부서별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는 최우수 부서로 문화유산과(목표액 500억원 이상)와 FTA농식품유통대책단(목표액 100억~500억원 이상)에 상패와 상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시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 부서인 산림자원과, 환경정책과, 독도정책관, 사회재난과를 시상했다.

3월말 기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대상(성주군), 최우수상(칠곡군, 봉화군, 의성군), 우수상(도 본청, 안동시)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도 경북도가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성주군은 군단위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국가경제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집행에 적극 참여해, 지난 1/4분기 동안 4조 6,543억원의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직접 시상 후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며,

“6월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작성자	과장	김진현			
			사무관	이용구	주무관	홍성찬	
		연락처	054-880-3182				

##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大 바겐세일 실시

- 23개 전 시군, 숙박시설음식점 등 944개 업체 참여.. 무료입장 및 최대 50% 까지 할인 -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경북,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

경상북도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2017 봄 여행주간’ 을 맞아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大 바겐세일’ 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발생한 9.12 지진과 사드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특별 기획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 23개 전 시·군에서 호텔·음식점·체험시설 등 944개 업체가 할인행사에 참여해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봄 여행주간’ 행사에 19개 시·군 173개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771개소(455%) 증가한 것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무료입장 및 할인행사에는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경주동궁원,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지 134개소에서 무료입장 및 30~50% 할인, ▲ 경주힐튼호텔, 경주현대호텔 등 숙박업체 301개소에서 주중 50%, 주말 30% 할인, ▲ 룩스글램핑앤팜, 경천대 물레길 카누 체험장 등 체험시설 42개소에서 10~20% 할인, ▲ 포항 물회식당 22개소 등 음식점 465개소에서 평균 10% 할인, ▲ 경북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휴그린골프장 2개소에서 숙박관광객에 한해 25%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축제 및 관광프로그램은 경주, 문경, 포항, 안동 등 12개 시·군에서 5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문경 전통차사발축제, ▲ 영양산나물축제, ▲ 신라 달빛기행, ▲ 플라잉 공연, ▲ 안동 고택愛 취하다, ▲ 어린이날 맞이 곤충체험축제 등이 준비돼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개방행사로는 ▲ 1년에 한번 석가탄신일에만 산문을 개방하는 문경 희양산 봉암사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방하며, ▲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고령 전통기와제조박물관은 행사 기간 중 평일 1회, 토요일 2회 개방하고 1회 최대 3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할인행사와 축제, 관광프로그램, 특별개방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http://www.gb.go.kr))와 경북나드리([www.gbtour.net](http://www.gbtour.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관광홈페이지 ‘경북나드리’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도 경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알차고 유익한 여행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파격적인 할인행사와 다양한 축제, 관광프로그램, 특별개방관광지 운영이 5월 황금연휴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재정 대구·경북 시도민회를 찾아 수도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일 경북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과 경북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 호텔, 음식점 등 관광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大 바겐세일’ 대책회의를 갖고 관광지 안전점검, 친절캠페인 전개 및 할인행사 참여, 축제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9.12 지진과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다양한 할인혜택과 관광프로그램 제공, 지속적인 관광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북의 관광이미지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실시계획, 브리핑 개요), 사진자료

# 「5월 황금연휴, 경북관광 大 바겐세일」 실시

지난 해 경주 지진과 중국의 사드 사태 및 경기침체로 위축된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5월 황금연휴 중 大 바겐세일 실시

**기 간 : 2017. 4. 29.(토) ~ 5. 14.(일)/ 16일간**

## 주요내용

- 주요 관광지 등 무료개방 및 할인 : 944개소
  - 주요 관광지 134개소 : 무료 입장 및 30% ~ 50%
  - 숙박업소(특급호텔 / 한옥체험) 301개소 : 주중 50%, 주말 30%
  - 주요 체험시설 42개소 : 평균 10% ~ 20%
  - 음식점 및 쇼핑점 등 465개소 : 평균 10%
  - 경주보문안동휴그린 골프장 2개소 : 숙박관광객 대상 25%
- 축제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 12개 시·군 41개
  -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예천 곤충체험축제, 영양산나물 축제 등
  - 어린이날 행사, 신라 달빛기행, 안동 고택愛 취하다 등
- 특별개방 관광지 운영 : 2개소
  - 문경 봉암사(4.29~5.7, 5.3제외), 고령 전통기와제조박물관(사설) 개방

## 향후계획

- 경북관광 홈페이지 '경북나드리'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집중 홍보
- 재경 시도민회 방문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작성 자	정책관	이복영			
			사무관	남인호	주무관	김영균	
		연락처	054-880-4172				

## 일본의 전략적 독도 도발 좌시할 수 없다!

- 경북도, 2017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언급 규탄 -

경상북도는 25일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기술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언급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임을 적시하고, “지난 3월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못 박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 고 촉구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발표해온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로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라고 하면서도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모순되게 기술함으로써 매년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붙임 참고자료(논평), 사진자료

##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1. 경상북도는 4월 25일 일본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지난 3월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전략적 책동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여도 독도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은 확고부동하다.
4.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4. 25.

**경 상 북 도**

#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발표 내용

일본 외무성은 4월 18일 '2017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 예정  
※ 독도에 관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 주장 '16년과 동일한 수준 기술

## ■ 일본의 동향

○ 발표일자 : 2017. 4. 25. (화) 08:30

※ 日,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각의에 보고

○ 내 용 : 일본의 외교정책 및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기술

- 독도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상륙 및 독도주변 군사훈련, 건조물 구축에 대해서는
  -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문구 추가

※ 외교청서 : 일본 외무성이 매년 각의에 보고하는 외교정책 및 최근 국제정세 ('63년부터 독도문제 반복적 기술)

<참고>

### 【 2017년 외교청서 독도기술 】

-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
-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음.
-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

## ■ 정부의 대응 계획 (외교부)

-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스즈키 히데오) 초치 항의

## ■ 우리 도의 대응 계획

- 도지사 논평, 보도자료 배포 - 4. 25. (화)

## 최근 5년 일본 외교청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

구분	내용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u>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u>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li> <li>○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음.</li> <li>○ 지금까지 3번(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는 등, <u>(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u></li> </ul>
2015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u>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u>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li> <li>○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음.</li> <li>○ <u>(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u></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li> <li>○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에 상륙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함.</li> <li>○ 그 후 (일본은) 한국정부에게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침에 세우고, <u>국제사법재판소 합의 회부 및 한일분쟁해결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을 제안</u>했지만, 한국정부는 8월 30일 제안을 거부함.</li> <li>○ 또 일본은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동시에 한국의 관료나 국회의원 등의 <b>독도 상륙</b>,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음.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u>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u></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li> <li>○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해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동시에 한국의 관료, 국회의원 등의 <b>독도 방문</b>,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음.</li> <li>○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 기울여 나갈 방침임.</li> </ul>

※ '13년부터(아베정권) 한국인의 독도상륙, ICJ 회부 표현 등장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이원경			
			사무관	한재성	주무관	박경복	
		연락처	054-880-4531				

## 여성일자리..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에 '답' 있다

- 2015년 전국 최초 출범한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매년 여성 취창업의 디딤돌 역할 -
- 25일 구미에서 합동개강식 열려, 3기 교육생 210명 새로운 도전 -
- 다문화, 장애인 등 분야 다변화를 통한, 장벽제거 및 교육 문호 확대 -
- 지난해 수료생 취창업 성공률 55%, 올해 65% 이상의 취창업을 목표로 출발 -

경상북도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 2015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여성 취·창업의 거점기관으로 매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범 첫해인 2015년에는 5개 교육과정 100명이 수료해 59명이 취·창업을 했고, 2016년에는 9개 과정 192명이 수료해 현재 106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도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21개 과정 중 10개 과정을 엄선했다.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25일 구미대 대강당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고우현(장두욱) 도의회 부의장, 남유진 구미시장, 도의원, 정창주 구미대 총장, 여성·사회단체장, 교육생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합동 개강식' 을 갖고 3기 과정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4월 카페산업분야 여성장애인 취·창업 전문인력양성과정(경상북도 장애인권익협회)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경주대), ▲ 기업맞춤형 고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구미대),

▲ 중소기업 사무행정 회계실무자 양성과정(구미대), ▲ 뷰티케어 서비스 분야 멀티형 네일아티스트 양성(대경대), ▲ 실버산업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전문인력양성과정(대경대), ▲ 재활승마지도사 양성과정(성덕대),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과정(지역사회적 경제허브센터), ▲ 여성 농촌관광전문가 양성과정(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경북교육사업단), ▲ 친환경염색인견 아동복제작 과정(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등 총 10개 과정이 운영 된다.

특히, 교육 3년차인 올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이 선호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됐고, 다문화·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과정(카페산업분야 여성장애인 취·창업 전문인력양성과정,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도 포함해 교육에 소외받는 여성이 없도록 교육을 운영 할 예정이다.

10개의 전문교육은 현장실습 및 견학, 직무교육, 성공취업 프로그램 등 여성의 취·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전문성을 강조한 특화교육으로 취·창업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부 행사에는 ‘여성리더십’ 를 주제로 현재 방송출연 및 다양한 강연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유인경 기자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유인경 기자는 “여성에게 희망과 꿈” 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강연으로 출발점에 선 사관학교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행사는 최미화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장의 개회사, 사관학교 교육생 선서, 김장주 행정부지사의 격려사, 내빈축사,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정책 소개, 여성일자리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미화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장은 “전 생애주기에 맞춘 경북형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도내 일자리 교육훈련의 소외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경북도는 시·군, 교육기관 및 일자리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여성이 일을 갖고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 고 했다.

붙임 행사개요, 사진자료

# 2017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합동 개강식

## 개 요

- 일 시 : 2017. 4. 25(화) 14:00 ~
- 장 소 : 구미대학교 본관 4층 대강당
- 참 석 : 250명 정도
  - 행정부지사, 사관학교장, 도의원, 여성관련 기관단체장
  -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교육생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특강, 개회사, 격려사, 축사, 교육생 선서, 기념촬영 등

## 시간계획

시 간 별		내 용		비 고
특강	14:00~15:00	60'	○ 특 강	유인경 기자
합 동 개강식	사관학교 합동 개강식			
	15:00~15:05	5'	○ 내빈소개	
	15:05~15:10	5'	○ 개식 및 국민의례	
	15:10~15:15	5'	○ 개강식 개회사	사관학교장
	15:15~15:20	5'	○ 사관학교 교육생 선서	교육생 대표 부지사님
	15:20~15:25	5'	○ 격 려 사	부지사님
	15:25~15:35	10'	○ 축 사	백승주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경상북도 의원
	15:35~15:45	10'	○ 4차산업 대비한 경북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여성정책담당
	15:45~15:55	10'	○ 여성일자리 퍼포먼스	
	15:55~16:05	10'	○ 기념촬영(사관학교 교육생)	부지사님
-	-	폐 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글로벌통상협력과				
		작성자	과장	박찬우			
			담당	김경동	주무관	임홍식	
		연락처	054-880-2713				

## 한-인니협회,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성과 거뒀다

- 경북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로 수출거점 마련 -
-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자매결연 및 장학금 전달식 병행 -

경상북도는 25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꾸닝안에 있는 아그로 플라자에서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북도 박찬우 글로벌통상협력과장과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양양연 한인회장과 코트라 김병삼 관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부청장,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아태국장, 한국 무역협회(KITA), 한인상공회의소(KORCHAM),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현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 리더 국가이자 앞으로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에 주목해, 지난 2015년에 경상북도 자카르타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해 양국 간의 수출통상, 교류협력, 투자지원 사업 등을 수출 첨병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오전에 자카르타사무소 개소와 함께 오후에는 술탄 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계약 250만불, 수출상담 500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일구어냈다.

26일에는 한인 사업장이 많은 썬까랑 지역의 수카르스미 마을(Desa Sukaresmi)과 수카르스미 초등학교(Skolar Dasar Negeri Sukaresmi)를 방문해 생필품,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등 500여 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격려하며 훈훈한 정을 나눈다.

이번에 단체 방문한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회장 오유인)는 지역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통상 및 친선 교류를 위해 2015년 5월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많은 대구경북 중소기업인 및 유관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 해당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뉴욕과 LA,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 등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찬우 글로벌통상협력과장은 “올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계기로 베트남 뿐 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며,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현지 수출거점 마련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통상지원 활동을 펼쳤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소				
		작성자	소장	허필중			
			과장	박무익	담당	유동재	
		연락처	054-730-1114				

## 양식산 쥐노래미, 밥상위에 오를 날 머잖아!

- 경북도, 양식 대체품종 개발위한 시험·양식 마무리 단계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작년부터 시험·양식 중인 쥐노래미를 올해 상품 크기까지 성장시킨 후 출하해 일반인들에게 양식산 쥐노래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강도다리와 넙치 위주로 편중된 동해안 어류 양식업의 대체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는 작년 5월부터 도내 민간 육상양어장에서 총 15만 마리의 쥐노래미 치어를 시험·양식 중에 있다.

현재는 시험 시작시 마리당 평균 6g 정도의 치어가 평균 100g까지 성장했고, 평균 200g 정도까지 성장하는 가을 정도에 출하한 후 양식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고래치’로 잘 알려진 표준명 ‘쥐노래미’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바닥이 암초나 해조류가 무성한 곳에 서식하는 연안정착성 어종으로 서식 장소에 따라 몸 색깔이 다르지만 보통 흑갈색이나 산란기에는 수컷이 황금색의 화려한 혼인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맛이 담백하고 가식부가 많아 고급횟감으로 각광 받고 있는 쥐노래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원조성 및 양식을 위한 종자생산 연구가 진행됐지만, 산란량이 적고 부화율 및 초기생존율이 낮아 현재까지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쥐노래미 종자생산 시험·연구에 착수해 그간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건강한 치어 20만마리 이상을 생산하는 등 대량 종자생산 기술을 확립했고, 양식 기술개발을 위해 2014년에 종자생산한 치어를 2년간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해 수정란을 얻는 등 완전양식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작년부터는 민간양어장에서 현장규모로 시험양식 중에 있다.

지난해 여름 30℃에 육박하는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시험양식중인 쥐노래미 일부가 폐사하고 성장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나, 연구소는 성장 및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식방법 및 사료를 개발하고 적정 사육환경 등을 규명해 쥐노래미를 동해안의 새로운 양식대상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생산한 쥐노래미 치어 20만마리를 경북도 연안 5개 시·군의 연안어장에 자원조성하고, 4만마리는 성장, 생존율 및 경제성 분석 등 양식 산업화를 위한 추가 시험양식을 실시한다.

허필중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쥐노래미 외에 문치가자미, 찰가자미 등 연구소에서 종자생산에 성공한 어종은 시험양식을 실시해 강도다리와 넙치를 대체할 동해안 양식 특화품종으로 개발하겠다” 며,

“줄가자미, 세줄볼락, 동해안 새우류, 대게, 대문어 등 동해안 한해성 특화품종의 종자생산 기술을 개발해 대량 자원조성 하는 등 동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붙임 참고자료, 사진자료

## 쥐노래미(*Hexagrammos otaki*) 특성

### ● 생태적 특성

- 분 포 : 우리나라 전연안, 중국 북부 연안 및 일본 연안
- 서 식 : 연안 암반지대 및 해조류가 무성한 곳에 서식(연안정착성 어종)
- 산 란 : 11~12월 해초에 알덩어리를 만들어 산란
- 기 타 : 산업적으로 유용한 종이며 연안오염과 남획으로 자원량 감소

### ● 형태적 특성

- 몸통과 머리는 옆으로 납작하고 눈은 등쪽에 있음
- 옆줄이 5개로 등쪽에 3개, 몸통 가운데와 배쪽에 각각 1개씩 있음



연구소에서 종자 생산한 쥐노래미



연구소에서 시험·양식한 쥐노래미 및 성장도 측정 광경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작성자	과장	구해일		
			사무관		주무관	조연순
		연락처	054-880-2993			

##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워크로 행정서비스 구현

-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협업·소통·공유 -

경상북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청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행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하는 방식 혁신인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으로 클라우드 저장소, 모바일오피스 및 새롭게 개편한 경북e음 시스템을 전 직원에게 보급해 언제 어디서나 협업·소통·공유가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기존 PC 중심 업무환경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업무환경으로 전환해 시간, 장소 제약해소 및 그룹저장소를 통한 협업으로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오피스는 행정자치부 보안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원현황 알림, 게시판 확인, 전자결재(대국민 공개문서), 메모보고 등 업무처리로 출장, 외근 시에도 신속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출자출연 및 시군과 연계한 경북e음 시스템은 기능향상을 위해 업무위주의 접근성 강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 통합검색 기능, 자동문서 수합 등으로 도정업무의 신속성, 유연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박성수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화된 내부행정 서비스 발굴에 힘쓰고, 경북e음, 클라우드 저장소 등으로 행정 정보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붙임 교육계획, 사진자료

# 스마트워크 행정정보화 교육실시

- ◆ 언제 어디서나 공유·협업·소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축에 따라 클라우드 저장소를 전 직원에게 보급코자 하며,
- ◆ 경북e음을 활용한 빅데이터 통합검색, 안전한 모바일오피스 활용 등 스마트워크 환경지원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함

## ■ 교육개요

- 일 시 : 2017. 4.25(화) ~ 4.27(목)(2시간)
- 장 소 : 도청 정보화교육장 제1강의실
- 대 상 : 200여명(부서별 최소 2~3명) ※ 교육이수자 부서내 전달교육

## ■ 주요내용

- **경북 클라우드 저장소 보급**
  - 자료 저장, 협업, 문서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업무환경 실현
  - 그룹저장소를 활용한 업무보고·의회·예산 등 취합 자료 공유
- **경북 e음시스템 메인 개편에 따른 운영 활성화**
  - 업무 활용도가 높은 주메뉴 위주의 접근성 강화
  -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 통합검색 기능
  - 웹오피스(자동문서 수합), 설문조사(시군, 출자출연가능) 등
-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설치 및 활용방법**
  - 행정자치부 보안모듈 탑재로 안전한 모바일 업무환경 제공
  - 출장 등 외부에서 문서결재, 메모보고 등 처리로 업무 연속성 확보

## ■ 기대효과

- (업무효율) 스마트워크 행정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정보보안 관리
- (협업지원) 부서 내 자료공유로 업무협업 가능, 업무이력관리
- (대외소통) 시·군, 출자출연간 업무 소통 강화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				
		작성 자	담당관	이 경 곤			
			사무관	이강학	주무관	박재우	
		연 락 처	054-880-2414				

## 4차 산업혁명 민실장(민생·실용·현장속으로) 기업 방문

- 인쇄전자 및 파워반도체 대표기업 2곳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
-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 매월 1~2회 실시 -

경상북도는 25일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외 10여명이 구미의 인쇄 전자 및 파워반도체 대표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3월부터 경북도에도 실시한 민실장(민생·실용·현장 속으로)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차 산업혁명 정책 발굴 및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첫 방문지로 파워 반도체 전문회사인 (주)케이이씨(구미시 소재) 사업장을 찾았다.

(주)케이이씨는 1969년 창업 이래 반도체 한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회사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자업체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친환경 제품·공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신산업 창출 방향인 만큼 그와 관련해 파워반도체, 전력 저소비 제품 등 성능 향상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주)케이이씨 관계자는 “KEC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2010년 LED 사업 진출을 결정했으며 세계 초우량 반도체 전문회사를 향해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KEC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중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초절전 소자, 고주파 소자 등 신기술에 도전·창조하고 있으며, 도와 관계기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인쇄전자 분야 대표기업인 (주)프로텍(구미시 소재)을 방문했다. (주)프로텍은 올해 3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광받는 중소기업으로 멀티코터를 주력제조 생산하는 기업이다.

※ 인쇄전자 : 프린팅 공정기법으로 만들어진 전자소자 혹은 전자제품을 의미  
멀티코터 : 필름에 특수용액을 코팅시켜 고분자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장비

이곳에서는 나노융합기술원 등 관계기관도 참석한 가운데 인쇄전자 분야 발전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프로텍 황중국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쇄전자 시장은 RFID, 메모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조명, 센서 등의 새로운 제품군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런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쇄전자기술의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경북도 및 관계기관에서도 기업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3월부터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공급 기업현장을 방문 현장 속에 답을 찾고자 했으며, 지난 4월 21일에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추진단을 발족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및 기업의 목소리를 종합대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송경창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매월 1~2회 직원 및 전문가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 강조했다.

붙임 방문계획, 사진자료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민실장 기업현장 방문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과학기술, 산업 육성, 추진체계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4월에는 인쇄전자 및 반도체 선도 기업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 1 현장방문 기업개요

### ○ (주)케이이씨

- (사업장 위치/종업원수)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41/ 621명(본사포함)  
 ※ 본사 :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5
- (업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 (주력제조상품) 트랜지스터, IC 등 반도체 및 전자부품

### ○ (주)프로템

- (사업장 위치/종업원수) 경북 구미시 공단동 / 79명
- (업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인쇄전자
- (주력제조상품) \*멀티코터(경북Pride상품), 연료전지장비  
 \* 필름에 특수용액을 코팅시켜 고분자 기능성 필름을 만드는 장비
- '17년 3월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선정 요건) ① 매출액 100~1,000억원 ②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③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 이상

## 2 시간 계획

※ 참여인원 : 창조경제산업실장의외 10명

시 간		내 용	비 고
4.25 (화)	14:00~15:00	60' ▶ 도청에서 기업으로 이동	
	15:00~16:00	60' ▶ 기업현장 방문 : (주)케이이씨	
	16:00~16:30	30' ▶ 이동	
	16:30~17:30	60' ▶ 기업현장 방문 : (주)프로템	
	17:30~18:30	60' ▶ 도청으로 이동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7. 4.25.(화)】</b>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작성 자	단 장	조 유 현		
			담 당	김두형	주무관	심영국
		연 락 처	054-880-6510			

## 방사능사고 빈틈없이 대응한다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월성원자력발전소 합동소방훈련 -
- 유관기관 합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도민 생명보호 -

경상북도는 25일 오후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사고 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경주지역 일원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월성 원자력 제3발전소 내 사옥동 건물 일부 붕괴와 방사능 누출을 가정한 합동훈련으로 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 경주소방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 3개 기관 105명이 참여했다.

중점 훈련사항은, 방사능 누출 사고발생시 방사능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른 상황접수, 출동, 대응단계별 임무·역할 숙지, 신속한 현장대응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등 방사능사고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월성 원자력본부의 자체소방대 인명대피 초기대응훈련을 시작으로 경주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119특수구조단의 방사능 측정, 통제선 설치, 인명검색과 구조활동, 요구조사 제염, 오염물질 수거 활동, 무인파괴방수차 종합방수 순으로 진행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지난 9.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의 지진 이후 현재 6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를 교훈으로 방사능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점검과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